

## 건축일상(建築日常)

### Routine of Architecture

이공희 /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전임강사, 건축사

by Lee Gong-Hee

이젠 그만 함직도 한 되풀이해온 고민을 요즘 새삼 한다. 아마 내일부터 같은 고민을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요번만은 이 고민의 끝을 좀 따라잡아 그놈 앞에 서봤으면 하는 잠깐의 오기도 습관이 되지 오래다.

요번엔 또 이것 때문에 지난 1년에 반쯤을 한동안 허둥대었음을 고백한다.

하긴 '들뢰즈/Deleuze, Gilles' 다 '푸코/Foucault, Michel Paul' 다 '자크데리다/Derrida, Jacques' 를 들먹이는 일이 건축에서만도 시작한 때가 한 10년은 훌쩍 넘어선 일이고 보면 구닥다리를 들고 또 헛갈려 했나 하는 괜한 자존심으로 지금 한심해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 고민에 출발의 요지는 에포크/epoch 전환시기만 되면 흔히 나타나는 '역사궤도' 의 생리나 습관으로 보면 그저 지나칠 수 있는 일인데 늘 예민하다.

그 중 한 단락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제껏 보아왔던 형상은 겉으로 드러난 상자외곽의 주름선 일뿐 그 형상을 위한 접혀짐, 그 상자 안을 보는 일에 소홀했다. 그런 연유로 혹여 모든 현상과 본질이 무엇인가 가려져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껏 본 것은 진실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간 건축에서 제외되었던 부분들이 우선가치가 되어 건축 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주며, 그것으로 인해 생겨난 건축은 이전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건축적인 사고와 맥락으로 풍경을 이룬다. 이는 신과학에서 'fold' 를 물질의 최소 단위를 이루는 에너지의 구조적 형태라고 하는 주장을 근거로 들뢰즈는 라이프니츠의 철학을 설명하면서 'fold' 란 세상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며, 세상을 편재(遍在)하는 것' 이라는 요지의 글이다.

이런 기억으로 인해 혹여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제까지 믿었던 진실이 '진실이 아니었다' 라고 하였다면 그 후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어도 이 땅에서 시대정신쯤을 기억하고 그것에 견주어 자기 건축을 할라치면 몇 번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곤 한다. 아니 내가 그랬다.

하긴 문화를 만드는 생각이란 늘 변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변화의 반을 뚝 잘라서 생각하더라도 그렇다. 파스칼/Pascal, 블레즈/Blaise과 몽테뉴/Montaigne Michael Eyquem de 조차도 진리탐구에 대한 전통적 입장을 고수했던 시절에 데카르트/Rene Decartes는 이에 관한 객관적 인식에 대한 개념을 전환함으로써 근세를 부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만들었던 인식론조차도 실질세계와 인간사고 간에 필연적인 연결점을 찾는데 실패하였지만, 흄/Hume David의 상대적 회의론으로 돌파구를 찾았고, 이는 19세기 근대에 이르러서는 칸트/헤겔의 인식론에 대한 해석의 틀에 대해 다시 전환을 보였다.

결국 니이체/Nietz에 와서 이성주의 인식론에 썩기를 박으며 '인간은 인간을 알 수 없다' 로 장구한 '너 자신을 알라' 의 서구철학은 그 힘을 잃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저러한 연유에 기반하는 그렇게도 철용성으로 여겨왔던 근대건축도 서구철학의 힘없음에 편승하는 운명이었음을 안다.

후기구조주의자/Post-structuralist 또는 신  
나이체주의자/Neo-nietzscheans들은 서양의 사고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그렇게 사고의 변화에 성공한다.

나이체의 언어에 대한 기본적 통찰을 계승  
한 데리다는 말이 먼저 생기고 글이 문화를 전달하는 차이  
를 문제삼는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으로 연계한다. 결국  
언어란 우리에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매개  
체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언어 자체가 실제와 상관  
없이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의 해법을 끊임없는?차  
연에 관계/relationship of difference로 보아야 한다?라  
는 대목에 오면 문화와 언어의 변방에서 이젠 이 건축을 어  
찌해야 하는 형편에 이를 때도 있었다.

일제 때 공부하여 해방 후 비로소 실제 건축  
에 기여한 세대가 원인이 되고, 주로 60년대 이후 한국 건  
축의 진흥을 이끌어온 세대의 건축 속에서 건축교육을 수혜  
받은 세대가.

대학 졸업 후 맞닥뜨린 실전의 80년대 시장  
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였다.

그 하나는 기술이 갖는 합리적 가치와 순수  
주의적 시각적 가치를 갖는 모더니티와 과거를 예상하여 수  
용해야하는 중압이다. 즉 지역적이며 토착적인 방법을 재평  
가하려는 경향에 편승하여 논의된 이른바 전통논의도 19세  
기 서구건축의 양식적 절충주의 맥락을 같이하는 양식의 수  
용현상쯤으로 희석되었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것 역시 양식의 재구성이란 논리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양식의 접합이란 레벨에서 논의되고 창작되었기 때  
문에 그 본래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유독 형태체계의 개념  
으로만 관심된 본질이외의 것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탈근대로 향하는 후근대 정신  
이다. 일의적 가치에서 다원의 가치로 이미 흠뻑 젖은 90년  
대 건축시장에 대한 생소함, 특히 그 시대건축에서 흔히 분  
속절없는 뼈딱선이 자연스런 연유의 건축으로 이해되는 데  
는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여야만 했다.

아직까지 그 생소함이란 내가 그리면서도  
익숙하지 않음은 접혀진 주름선만 아직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 속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젠 도구마저도 디지털 환경으로  
자리를 내주었고, 가상과 실체를 넘나드는 ON/OFF환경은  
건축에서도 더 이상 경계까지도 흐릿하게 하여 허락하지 않  
는다. 오히려 그 경계사이에 관심하기도 한다.

1950년대 이후 10년 주기성을 보여준 건축  
에 향위는 우리 환경에서도 분명 후기 구조주의의 사유 안에

있다. 그 10년성이란 형태의지에 대한 탈 모던적인 전환의 50  
년대, 자유정신에 의한 대중문화 운동기의 60년대, 합리주의  
정신에 의한 기술과 고전의 변환기의 70년대, 네오-다다이적 신  
주관주의기의 80년대까지를 이른다. 공감하는 바와 같이 90  
년대에 이르러 다원적인 가치로 보여주고 있는 트렌드를 총체  
적으로 구분하여 일갈하기란 그리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

실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흘러갈 일이  
라면 그렇게 복잡할 일도 없고 뱃속까지 편할 일이다. 하지  
만 작금의 건축은 그리 호락하지 않은 것 같다.

어느 날 다가온 프로리안 베이겔/Florian  
Beigel은 미스와 꼬르뷔제와 함께 한스 샤로운을 같은 반열  
에 올리면서 슈타트란트샤프트/Stadlandschaften란 개념  
을 소개한다. 본디 샤로운은 도면을 보고 이해하기가 좀처럼  
어려운 다소 복잡하고 기이한 건축을 구사하고 베를린 필 하  
모닉 홀, 베를린 국립도서관 정도의 건축가로 기억한다.

슈타트란트샤프트-도시조경이란 모호한 컨  
셉트는 내외부 공간의 구분 없음을 주장하는 요지였고, 그래  
서 외부가 진작에 내부화하고 있었음을 깨우치는 일도 있었  
다. 더 기막힌 것은 뤼콜하스 쥬셔도서관 설계경기에서 보  
여준 지형공간은 슈타트란트샤프트가 훨씬 더 광범위한 교  
감으로 아예 지형이 올라와 공간 속에서 나선형을 그린다.  
이는 자에라 폴로/Alejandro Zaera Polo의 명동성당 설계  
경기안을 대할 때 작금에 남의 건축이므로 둔감함에 익숙한  
것이 바로 우리 현실에 실천되고 있음을 깨닫는 충격-뭉 그  
런 경험도 있었다.

1932년 뉴욕MOMA에서 새로운 양식이 아님  
을 선언하면서 열렸던 국제건축전과 같은 형식으로 약 60년후  
에 또 새로운 양식이 아니라며 열렸던 Lighting Construction전  
은 지구가 6천년 별다른 대안 없이 극복하지 못한 포스트-린텔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개념인가 한 적도 있었다.

지금은 흔해져버린 중력, 도형의 발견, 데이  
타, 제3의 조작, 조직의 이식/grafting, 각기 기능을 묶는  
편한 도구였던 복도가 없어진 Corridorless, Emptiness,  
최근에 손에 쥘 글 속에 시설/Institution이란 개념.... 혼돈  
의 근거는 너무 많다.

불안하다.

이 땅에서 건축을 한다는 일이 얼마나 불안한가.

자신의 생각을 신념으로 포장하여 남에게  
전하고 설득해야하는 건축이어서 더 불안하다. 그리고 실제  
로 증명되기 때문에 더 더욱 불안하다.

그래도 지금 내가 건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소간 지적 사유를 유보해놓더라도 건축이 가능했던 시기  
보다는 그저 좋을 것이라는 확신 또는 오기 때문이다. ㄷ